

#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에 나타난 도시 젊은이들의 생태 고찰

마희정\*

##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소외의 공간과 시술어 ‘버려지다’의 층위
  - 1. 도시 중심부와 학원으로부터의 배제
  - 2. 도서관에서의 유기(遺棄)
  - 3. 월세방에서 쫓아냄/쫓겨남
- III. 신체·생리적 기체의 작동 방식
  - 1. 육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 2. 고이다/사라지다-침
  - 3. 씹다/빨다/삼키다-껌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침이 고인다」의 주인공들은 도시 중심부와 학원으로부터의 배제와 도서관과 월세방으로부터의 분리를 드러낸다. 즉, 순차적으로 학원, 도서관, 월세방에서 주인공들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고립·소외되거나 외면·유기된다. 이는 신체적 증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육체적 피로가 겹치면서 연쇄적으로 몸의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 그 원인은 ‘그녀’의 경우, 과도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불러온 무력감과 만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배의 경우,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배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비밀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지만 결국 그녀에게도 버림받는다. 이때 결핍과 상처는 아물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할 때마다 침은 고였다 사라진다.

\* 단독저자, 충북대 교양교육본부 초빙교수, [kakang@chungbuk.ac.kr](mailto:kakang@chungbuk.ac.kr)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땅의 도시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주인공들은 도시 생태 속에서 조화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잘 관계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는 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 관계는 버림받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한 개인을 억압하면 억압당한 개인은 또 다른 개인을 환대하지 못한다.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리되어야 마음이 편하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은 불안한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디며, 그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생태이다.

후배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때마다 침이 고이는데 이별의 아픔과 상처가 육체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후배는 상처받은 타인과 껌을 나누어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공유하려고 시도한다. ‘그녀’는 후배가 떠난 후, 후배가 남긴 껌을 씹어보는데 그것은 공유점을 찾아서 공동체와 연대를 꿈꾸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껌은 삼킬 수 없고 씹일 수 없는 이질적인 타인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심층적으로 후배가 남긴 껌을 씹는 그녀의 행위는 다시 한번 후배의 자리에서 봄으로써 후배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이며, 후배가 곧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열쇠어 : 배제, 분리, 신체적 증상, 자본주의, 심리적 외상, 도시 생태

## I. 들어가며

‘생태’ 담론의 ‘생태’란 용어는 생태학은 물론이고 20세기 들어 태동하고 있는 자연과학 내의 새로운 학문 경향들, 즉 인간과 자연, 개체와 개체 등 세계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각을 총칭하는 상징적 표현이다.<sup>1)</sup> 지금까지 생태 담론이 ‘자연’의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도시적 공간에 대한 생태적 읽기도 요청된다. 인간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는<sup>2)</sup>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의 위계 질서와 착취 구조를 드러내며 사회 생태적 측면에서<sup>3)</sup> 인간의 삶을 고찰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 속

1)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도서출판 아르케, 2006, 123쪽.

2) 김택중은 생태학자들이 “도시, 나아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문화를 반생태적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진지한 생태 비평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한다. 김택중, 「디킨스 후기 소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현대영어영문학』 제54권 2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0, 45쪽 참고.

생명체인 인간의 문제는 다른 생명체의 문제 혹은 다른 환경의 문제에 선행한다. 모든 것을 화폐의 권력 아래에서 순환을 교환으로 바꾸어 놓는 자본주의 도시 사회의 인간 문제는 환경 및 생태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생태론은 위계 구조의 지배가 궁극적으로 생태 위기의 원인이며, 경쟁적 자본주의 시장이 자연 생태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sup>4)</sup> 강조한다. 이러한 도시 생태적 환경에서 우리는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사이의 평등성과 상호 연대를 꿈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모여 사는 공간 속에서 동등하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생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도 가늠해 보아야 한다.

김애란의 작품들<sup>5)</sup> 도시 자본주의의 가난한 청년들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시적 공간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식인 자본주의를<sup>6)</sup> 배경으로 도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공동체가 모여 사는 공생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고, 배려 없는 관계 속에서 그 내면에 불안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 경쟁

3) 복친이 “사회적이란 말을 생태학 앞에 붙인 이유는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생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필연적으로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 대안 사회의 건설을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문순홍, 앞의 책, 134쪽.

4) 머레이 복친, 『머레이 복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서유석 옮김, 메이데이, 2012, 100쪽.

5) 김애란은 23세이던 2003년 대산 문학상 당선작 「노크하지 않는 섬」을 계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한다. 25세에 첫 번째 창작집 『달려라 아버지』(2005)를, 27세에 두 번째 소설집 『침이 고인다』(2007)를, 32세에 『비행운』(2012)을 발표한다. 특히 단편 「침이 고인다」는 2007년 이상문학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신동엽창작상과 만해문학상을 받았을 만큼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6)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사용한 용어로, 자본주의 경제가 시스템 내부의 ‘비-경제적’ 주변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빨아먹어 버리는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 제 꼬리를 먹으며 자멸하는 뱀처럼 자신을 지탱해주는 사회·정치·자연의 토대를 먹어 치우느라 여념이 없는 시스템의 이미지이다.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2023, 16~17쪽.)

이 치열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윤과 소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그것에 발맞추지 못하는 개인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지향하는 안식처인 도시적 공간 방은 고립되어 있으며 편안해야 할 사람의 관계는 어긋나 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분리되거나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소외되거나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애란의<sup>7)</sup> 『침이 고인다』 속 단편들의 인물들은 형편이 어려운 서울살이를 하는 젊은 청년들로 반지하방(「도도한 생활」), 셋방(「네모난 자리들」), 원룸이나 고시원(「기도」), 단칸방, 옥탑방, 독서실에<sup>8)</sup> 살면서 재수를 하거나 (「자오선을 지나갈 때」) 아르바이트 또는 학원 강사를 하는 비정규직 인물들이다. 그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데이트 비용을 걱정하고 (「성탄특선」), 도시에 방 한 칸을 가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sup>9)</sup> 특

7) 김애란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덕, 「김애란 초기 단편 소설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송지연, 「차이들의 우주적 네트워크-2000년대 한국 소설의 패러다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양윤의, 「서울, 정년의 지도-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임수진, 「치유적 관점으로 본 문학 교육의 효용성: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4.

홍단비, 「김애란 단편소설 「침이 고인다」 연구」, 『어문연구』 42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지금까지 김애란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언급되거나 평론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비교적 젊은 작가이고 앞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가능성은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의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이 일단락 지어진 초기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텍스트 서사의 고찰은 필요하다.

8) “공간적인 면에서 볼 때 김애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달동네·지하셋방·허름한 원룸·고시원·자취방·친척집·지방 소도시의 조립식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거세된 메마른 일상을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들의 불안한 실존과 유예된 희망을 그 자체로 상징한다.”(권성우, 「조숙한 청년의 문학-김애란론」,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8, 132쪽.)

9) 『침이 고인다』 속 단편 중에서 「칼자국」은 칼을 잘 다루던 어머니의 초상과 죽음을

히 이 중에서 표제작인 「침이 고인다」는 학원 강사인 주인공과 아르바이트로 침삭 일을 하는 후배가 도시 속의 ‘방’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도시 안의 주변적 공간, 소외적인 인물, 사회적 저소득층의 환경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편집 속의 다른 소설들을 대표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그려지는 비유적 문장이나 단어는<sup>10)</sup> 소설이지만 시적인 분위기에 가까운, 미학적이며 상징적인 기법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침이 고인다」는 의미 구조상 중심적인 서술어(서술 명제)<sup>11)</sup> ‘버려지다’가 신체·생리적 기제로 연결되면서 도시 자본주의의 생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 젊은이들의 불안한 생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2)</sup> 작품 속에서 도시 속 소외의 공간을 바탕으로 중심적인 서술어 ‘버려지다’를 추출할 수 있다. 서술어 ‘버려지다’는 세부적인 층위를 가지고서 주인공들의 불안 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젊은 비정규직들의 낙오와 배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그것들의 영향 아래에서 개인적인 관계들 사이의 갈등이 전경화되고 있다. 이때 도시 자본주의 생태는 ‘나’와 ‘너’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결렬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그리고 있으며, 「플라이테이더리코더」는 블랙박스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소년의 이야기  
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상 다른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 10) “월급날은 번번이 용서를 비는 애인처럼 돌아왔다.”(50쪽)  
 “그녀는 수류탄을 든 채 자살 기도하는 탈영병을 달래듯 간절하게 외쳤다.”(60쪽)  
 “그녀는 주인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자처럼, 후배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다.”(66쪽)  
 이하 수없이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서술어와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 11) “하나의 서사물은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서사물은  
 그 세계에 관한 명제들-그 하나하나는 논제-논평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을 표현한  
 다.”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8, 98쪽.
- 12) 머레이에 의하면 “자연을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보는 생각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  
 의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생태 위기의 극복은 지배와 위계구조에 근  
 거한 사회 관계를 폐지하고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 관계를 재구성해야만 가능하다.”,  
 머레이 복친, 앞의 책, 10쪽.

먼저,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에 나타나는 공간과 그 의미, 서술어 ‘버려지다’의 양태를 층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생태 속 도시 젊은이들의 생태와 환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것이며, 향후 타인과의 친화 및 공생의 가능성이 생명의 연관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상처가 제목 ‘침’이 상징하는 것처럼 신체적이며 생리적인 기제로 작동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나’와 ‘너’의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보이는 이질감과 거리감은 어떤 공간 속에서 직접적이면서도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신체화는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신체로 표현하는 방어기제이자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증상을 수반한다.<sup>13)</sup>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개인의 증상들이 어떻게 신체적이며 생리적으로 파고드는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작품을 꼼꼼히 읽어나간다면 자본주의 도시 생태가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그들에게 사회적 재생산의<sup>14)</sup> 가능성은 있는지 김애란의 목소리를 통해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박주연·안현의·김원형, 「심리 외상 이후의 신체 증상」, 『정신신체의학』 24, 2016, 44쪽.

14) “‘사회적 재생산’이란 인간 존재와 사회적 유대를 생산하고 지탱하는 상호 작용, 필수재 공급, 돌봄 제공의 형태들을 뜻한다. ‘돌봄’, ‘감정 노동’, ‘주체화(subjectivation)’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이러한 활동은 자본주의의 인간 주체들을 형성하고, 그들을 육체를 지닌 자연적 존재로 지속시킨다.”(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40쪽.)

## Ⅱ. 소외의 공간과 서술어 ‘버려지다’의 층위

### 1. 도시 중심부와 학원으로부터의 배제

주인공 그녀는 입시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13평형 원룸에 살며 월세, 의료보험, 적립식 펀드 한 개와 적금을 부어갈 만한 생활력을 갖추고 있다. 도시에서의 학원은 자유 계약에 따른 교환으로 위장을 하고 자본을 착취한다. 겉으로 그녀는 당당하게 시민의 지위를 가지고 국가에 의해 보호받으며 자기 노동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시 학원에서의 면접 과정, 학원 생활과 학원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체육대회 행사 등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은 도시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도모하는 젊은이의 떳떳함이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입시 학원의 면접에서 스스로 몸값을 불러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쟁, 승리, 성장의 “충동”이 표출되는 사회인데,<sup>15)</sup> 그러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주인공은 수치심을 느끼고, 학원 측의 갑작스러운 시범 강의 요구에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한다. 오히려 주인공은 진땀을 뺀 정도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이 소설의 사회적인 배경인 학원 생활에서 주인공은 감이 아니라 울의 위치에 놓인다. 때문에 주인공은 부장의 질책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학원 사람들과는 관습적이며 기계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시, 학원이라는 공간은 주인공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계층과 위계로 나뉘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주인공은 중심인이 아니라 주변인이다.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세련된 교양과 상식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만큼 표면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 속 학원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

15) 머레이 북친, 앞의 책, 105쪽.

사람들은 형식적이며 관습적인 걸치레 인사를 하면서 서로 무관심하며 배려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목감기에 걸려도 아무도 에어컨을 줄이거나 끄자고 하지 않으며 아무도 대신 보강을 해주지 않는다. 생산과 수익, 그리고 수익을 통한 성장만을 노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윤리적, 종교적, 심리적 정서적 요인은 설 곳이 없다.<sup>16)</sup> 북적이는 도시는 오히려 한 개인에게 심리적 서러움의 공간, 격리와 소외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함축하고 있는 학원에서의 체육 대회는 이 소설의 핵심적인 에피소드에 해당한다. 체육 대회에서는 학원 구성원이면 누구든 한 가지 종목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달리기와 장기 자랑인 꼭짓점 댄스에 무조건 동원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사회의 규율과 의무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얼마나 구속과 강요를 암암리에 행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주인공이 속한 국어과는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피구, 나아가 결승전의 이어달리기에서도 참담하게 지고 만다. 체육대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관계는 경쟁의 구도에 놓여 있고, 주인공은 탈락하거나 패배하거나 배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주인공의 달리기 실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출중하다는 사실이다. 주인공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도록 달린 습관에 의해 달리기 실력이 몸에 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팀 중에서 3등인 어정쩡한 국어과의 등수는 경기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며 삶에서의 패배와 겹쳐져 읽힌다.

주인공의 패배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부에 소속되지 못하고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금 밖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도시 주변인의 청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독립이 주는 떳떳함과 함께 술자리에서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지인들의 경조사에서 사람 노릇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녀가 학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50쪽)인데, 주인공은 최소한의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 아슬

---

16) 머레이 북친, 같은 책, 55쪽.

아슬하게 매달려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학원 선생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 폐기 처분이 가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본주의 속에서는 언제든지 폐기 가능한 개인들이 있고, 그 개인들의 억압과 위기는 중심부와 주변부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도시 속의 개인은 자본주의의 전경에 드러나 있는 성장, 효율성, 증가 교환, 개인의 선택, 소극적 자유, 능력주의적 출세 등과<sup>17)</sup> 먼 거리에 있다. 오히려 소설 속의 그녀는 극단적인 불평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 아웃사이더의 소외 의식 등을 드러내며, 자본주의적 생태 속의 도시 청년들의 불안과 배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 2. 도서관에서의 유기(遺棄)

이 소설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 후배 역시 주인공인 그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해당한다. 후배는 신세를 지고 있던 집에 차압이 들어와 그녀의 집에 오게 되면서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sup>18)</sup> 후배는 그녀의 침삭 일을 도우며 그녀와 세 달 정도 같이 살고 있다. 학원 부장은 주인공인 그녀에게 후배가 한 침삭의 오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녀는 후배에게 부장이 했던 그대로 질책을 한다. 학원 부장이 계층적인 위계 질서의 맨 꼭대기에 놓여 있다면, 중간에 주인공인 그녀가 있고, 후배는 하위에 놓여 있다.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후배의 어릴 적 이야기는 그녀와 후배가 공유하게 되는 비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후배를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소설 속 후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17)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57쪽.

18) 그녀와 후배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만남-동거-이별’의 구조를 보인다. 이 서사 구조에 대해서는 홍단비, 「김애란 단편소설 「침이 고인다」 연구」, 『어문연구』 42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363~365쪽 참조.

- ①후배는 엄마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다.
- ②후배의 엄마는 후배 손에 껌을 한 통 쥐어주고 사라지다.
- ③후배는 껌을 씹으면서 엄마를 기다리다.
- ④후배는 세 번째 껌을 씹으면서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찾다.
- ⑤후배는 네 번째 껌을 씹고 다섯 번째 껌을 씹으며 엄마를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다.

핵심적인 서술어의 양상 : 가다→사라지다→기다리다→찾다→찾을 수 없다(버려지다)

후배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는 길거리나 공원이 아니라, 조용하고 적막한 도서관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한다. 무서울 만큼 조용한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목 놓아 울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다.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 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울 수 없는 공간은 아이에게 이중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는 버림받으며, 자신이 물건처럼 폐기 처분되었음을 자각한다. 즉, 도서관은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고립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후배의 공포와 상처는 후배의 삶에 뚜렷한 흔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은 후배가 이후 만나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남과 이별은 반복되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반복의 전형을 이룬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끝내 타자와 공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 후배가 그런 인물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어머니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인간의 생활 터전을 받치고 있는 생계가 불안정할 때 조성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위험한 사회는 그것을 지탱하는 생계가 위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적 인간 관계의 위험은 사회적 인간 관계의 위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후배가 도서관에서 어머니로부터 유기된 것은 책임도 의무도 없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듯이 하는 극단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자연의 많은 부분을 수탈하는 도시 자본주의의 생태는 궁극적으로 인간 공동체의 와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 3. 월세방에서 쫓아냄/쫓겨남

그녀는 처음 그녀의 월세방에서 후배를 맞이했을 때 후배가 그녀의 대학 후배라는 것밖에 모르고, 서로 잘 알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후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만 잘 기억하지 못한다. 도시에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익명의 관계를 선호한다. 자본주의 도시는 교환과 거래의 바탕에서 상호 인간 관계를 이해한다. 그러나 목소리가 좋고 이야기를 잘 하는 후배는 하룻밤 묵어갈 것을 요청하고, 그녀는 인정 없는 선배로 소문이 나고 싶지 않아서 하룻밤 정도 후배를 묵어 가게 해 준다. 자신의 월세방에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하룻밤의 호의와 고단한 도시 생활 속의 고독이 작용하고 있다.

그녀에게 월세방인<sup>19)</sup> 13평형 원룸은 그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활력을 가진 도시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간이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학원에서 비정규직으로 돈을 버는 수모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에게 월세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바깥 세상의 소음으

---

19) “‘집’과 달리 ‘방’은 개인의, 혹은 개별성의 상징 공간이다. ‘내’ 방은 휴식, 내밀성, 은밀하고 사소한 행복의 의미 작용을 가진다. 방은 개인에게 있어 비밀스러운 닫힌 공간인 것이다...김애란의 ‘자기만의 방’은 이보다 절실한 사회적 차원이 개입되어 있다. 그곳은 ‘신빈곤’ 시대의 20대들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입사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이광호, 「나만의 방, 그 우주 지리학」,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284~285쪽.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다음으로, 약간의 목욕 용품과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돈을 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77쪽) 믿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삶은 그녀에게 아무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한편, 후배는 타자와 공유할 수 없는 상처를 공유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때 묻은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껌 한 조각을 꺼내 “껌을 집어 들더니, 망설일 것 없이 반으로 북-쪼개”어(60쪽) 그녀에게 건넨다. 후배의 비밀 이야기와 함께, 껌 반쪽을 건네받은 그녀는 후배와 비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예기치 않은 동거를 시작한다.

후배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었다...그녀는 껌 조각을 화장대 위 영수증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껌 같은 거, 후배가 나가기 전에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그날 밤, 후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필자) 후배와 살게 된 건지도 몰랐다. (61쪽)

그러나 이들 동거의 시작은 공유와 고독 사이의 절묘한 시소 타기를 연상하게 한다. 특히 그녀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동거의 합리적 이유와 이별의 사유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거의 합리적 이유	이별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을 때 학원에 전화를 하고 쌀죽을 끓임</li> <li>· 3개월 전 눈부시게 집안 청소를 해 놓음</li> <li>·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내려받아 쌓아 놓음</li> <li>· 소국을 유리컵에 꽂아둠</li> <li>· 월세를 같이 부담함</li> <li>· 떡볶이를 먹고, 그날 일을 이야기하고, 공과금 납부를 상의함</li> <li>· 노트북의 영화도 같이 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상의 습관, 관계의 습관 중 부정적 목록의 발견 -변기 뚜껑을 잘 적신다. 화장품을 헤프게 쓴다. 드라이할 옷을 세탁기에 집어 넣는다. 이불 위에서 침착을 하고 잉크를 묻혀 놓는다. 문을 세게 닫는다. 연예 기사를 너무 많이 본다. 말이 많다. 한 번 쓴 수건은 다시 쓰지 않는다. 옷을 유치하게 입는다. 샤워 후 발에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이불 위로 올라온다. 지적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물을 조금 마시고, 채소도 잘 안 먹고, 발가락에 웅이가 있다.(66~67쪽)</li> <li>2. 후배가 그녀를 따라 하고 있다는 느낌 -옷, 말투, 노트북의 음악, 와인 동호회 가입, 생리</li> </ol>

위에서 정리한 ‘동거의 합리적 이유’는 이상적인 생태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그곳은 건강한 상호 의존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며, 비위계적인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진정한 자율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적인 생태 공동체의 소설 속 시간은 3개월 정도로 한정된다.

이별의 사유가 누적되면서 그녀는 어느 순간 퇴근 후에 자신의 공간에 후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자처럼”(66쪽) 후배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열거하다가, 급기야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내뱉는다. 그녀는 심드렁한 대꾸와 틀린 원고의 질책 뒤에 후배의 생리혈에 놀라고 얼른 고독해지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사적 관계의 어긋남에는 자본주의 속 경쟁 사회의 강요와 위축과 소외가 배경으로 놓여 있다. 공적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혼자만의 공간인 방을 필요로 한다.

거듭되는 만남과 이별의 서사에서 ‘버려지다’의 서술어는 핵심적으로 추출된다. 그녀가 극단적 자본주의가 만연한 도시와 학원에서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후배 역시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좋아하는 선배로부터 버려지고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서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소외와 배제가 보인다. 아울러 그러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개인적 관계로 이어지고, 도서관이나 월세방이라는 공간으로부터의 개인적 분리를 초래한다. 유기되거나 쫓겨남으로써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자율적인 공동체는 요원해 보인다.

### Ⅲ. 신체·생리적 기제의 작동 방식

#### 1. 육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버려지다’의 반복적인 층위는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주인공들에게 육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바, 그 신체·생리적 기제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굵은 이탤릭체에 잘 드러나고 있다.

<p>① <b>피곤하다</b>  <b>정말 피곤하다</b>  <b>몇 시지?</b>  <b>오늘, 학원 가지 말까?</b></p> <p>② <b>춡다</b>          ③ <b>죄송합니다</b>          ④ <b>그러지 마</b>  <b>춡다</b> ⑤ <b>우울하다</b>  <b>좀 잘까?</b>  <b>이겨라</b>  <b>너, 와인도 마시나?</b></p> <p>⑥ <b>목마르다</b>  <b>너, 생리하나?</b>  <b>피곤하다</b></p>	<p>①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 몇 시지? 오늘, 학원 가지 말까? 좀 잘까? -피로, 피곤</p> <p>② 춡다. 춡다.-갑기</p> <p>③ 죄송합니다. 이겨라. -사회적 약자의 태도, 패배 의식</p> <p>④ 그러지마. 너, 와인도 마시나? 너, 생리하나? -후배에 대한 반감의 점층적 태도</p> <p>⑤ 우울하다. -우울</p> <p>⑥ 목마르다. -갈증</p> <p>①, ②, ⑤, ⑥- 육체적·정신적 증상          ③, ④-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의 긴밀성(부정적 측면)          ③ → ①, ②, ⑤, ⑥ → ④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 → 병리적 증상 → 개인적 관계의 와해</p>
---	---

이 소설의 첫 부분은 어둠 속 알람이 울리면서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피곤한 신체를 쉽사리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sup>20)</sup> 학원의 과도한 업무에 치여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육체는 피로에 절어 있고, 감기 기운으로 몸이 육신거린다. 현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바빠 돌아갈 때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녀는 퇴근 시간마다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어라 뛰어야 했고, 현실을 견뎌야 하는 불안한 육체는 피곤과 감기와 생리를 증상으로 드러낸다.

젊은 육체의 과도한 피로함은 자본주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내는 기제이다. 그녀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을 한 채, 돈을 벌기 위하여 언제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잔업과 일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비롯되는 연쇄적인 몸의 이상 징후는 예정일이 아닌데도 생리를 하게 되거나, 계절이 아닌데도 여름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감기와 생리가 겹쳐 있는데도 체육 대회의 이어달리기 선수로 또 동원되어 뛰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은 젊은 청년들의 예정된 패배감을 잘 드러낸다. 때문에 자본주의 속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은 암암리에 육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김애란의 청년들은 불안하게 이를 견디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만기일까지 적금을 붓기 위해선, 오늘 하루, 열심히 얼룩말처럼 달리고, 곰처럼 चु취야 한다”(50쪽)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녀는 지목당하지 않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다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또 그녀는 엄살떨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

---

20) “악화된 신체 증상이 회피 반응의 증가로 이어져 활동성 저하와 우울감과 연결된다는 영구회피모델(perpetual avoidance model)도 외상 경험 후 신체 증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박주언 외 2인, 앞의 글, 46쪽.)

는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울적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배려 없는 현실과 체육대회의 참담한 패배는 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안팎으로 이어지는 불편한 관계를 통해 주인공의 정서적이며 심리적인 무력감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의 동거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후배의 생리혈이다. 후배의 생리혈은 후배의 ‘따라하기’가 그녀에게 타인이 불편하다는 선명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정점이다. “후배의 베이지 반바지 위로 동전만 한 얼룩”(75쪽)과 “이불 위에도 생리혈이 묻어”(75쪽) 있는 장면에서 그녀는 “너, 생리하니?” 라고 소리치고, 후배는 예정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거나 어쩔 줄 몰라한다. 한 사람은 소리치며 나무라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제 그만”(76쪽)이라고 내뱉고, 다른 한 사람은 “예감에서부터 체념까지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을 한순간 끝내버리는 듯한 혼란된 눈빛”(76쪽)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요컨대 <침이 고인다>의 인물들은 피로, 감기, 생리(혈), 갈증 등의 신체적 생리적 증상과 ‘고개를 숙임’, ‘울적한 표정’, ‘소리침’, ‘나무람’, ‘어쩔 줄 몰라함’ ‘체념의 눈빛’과 같은 부정적인 육체적 몸짓과 우울감, 불안, 무력감 등의 정신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은 그녀의 경우, 과도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불러온 무력감과 만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후배의 경우,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고이다/사라지다-침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후배의 이야기는 정신적 상처가 육체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보여준다. 후배는 어릴 적 이별의 상처나 결핍이 반복될 때 입에 침이 고인다. 침이 고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침의 고임과 사라짐은 살아 있는 한 이별의 상처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엄마가 열람실로 들어가자마자 껌 하나를 꺼내 씹었어요. 입 속 가득 그 육한 **침이 고여 자꾸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초조했고, 그래서 또 껌 하나를 꺼내 씹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네 번째 껌을 씹었어요. …설탕 파우더가 입혀진 껌을 둥글게 말아 입속에 털어 넣었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목 놓아 울 수 없었어요. …떠나고, 떠나가며 **가슴이 뻘근하게 메었던**, 참혹한 시간들을 떠올려볼 때면 말이에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58~61쪽)

위의 인용은 후배가 어머니에게 버려진 후 껌을 씹으며 침이 고이기까지의 과정이다. 요약하자면 여기에서도 몸의 동작과 상태가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다.

껌을 꺼내 씹자 침이 고여 자꾸 입맛을 다시다 →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또 껌을 꺼내어 씹다 → 목이 메어 다른 껌을 씹다 → 껌을 둥글게 말아 입속에 털어 넣다 (껌을 씹다 : 필자) → 가슴이 아프지만 울 수 없다 → 가슴이 뻘근하게 메이다 → 침이 고이다

이처럼 후배가 껌을 씹으며 침이 고이고 사라지는 과정 사이에는 어머니에 대한 후배의 기대감과 상실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때의 ‘초조한 마음’, ‘목이 메임’, ‘가슴이 아프지만 울 수 없음’, ‘가슴이 뻘근하게 메임’의 표현은 후배가 이별에 대처하면서 보이는 몸짓 언어이면서 동시에 신체·생리적 증상이다. 버려지고 있음을 예감하고 상실감에 슬퍼하는 후배의 신체 몸짓 언어는 김애란의 소설 속 지난한 삶을 견디는 인물들의 언어이다. 그들은 도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엄살떨지 않고 분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후배의 어머니와의 이별은 그녀와의 이별과 겹친다. 후배는 어머니에

게 버림받은 비밀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그녀에게도 버림받는다. 이때 결핍과 상처는 아물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할 때마다 침은 고였다 사라진다. 육체에 깊이 각인된 기억은 예정된 이별이 반복될 때마다 침이 고였다 사라지는 것처럼 어김없이 회귀하는 것이다.

### 3. 씹다/빨다/삼키다-껌

주지하다시피 신체적 반응인 ‘침이 고인다’는 ‘껌’을 꺼내 씹으면서 시작된다. 껌은 오래된 인삼껌이다. ‘설탕 파우더가 입혀’져 있으므로 달콤하면서도 ‘인삼 향’의 향신료로 인해 씹싸름하다. 달콤하면서도 씹싸름한 맛의 껌은 만남의 기대감과 이별의 상실감을 상징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어머니에게 버려질 때 받은 껌 중에 마지막 한 개를 반으로 잘라 후배는 그녀와의 만남의 증표로 공유하고, 헤어질 때 인삼 껌 반 개를 남긴다.

여기에서 껌이나 껌을 씹는 행위를 후배의 입장과 그녀의 입장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후배의 입장에서는 껌을 씹는 행위도 도서관에서 어머니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결국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동시에 가지게 한다. 후배에게 껌과 껌을 씹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고, 후배는 침과 함께 껌의 맛에서 삶의 아픔, 상처, 고통의 쓴맛을 맛본다.

다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껌은 간직하고 싶지 않은 타인의 물건으로 들고 싶지 않은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후배의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고 껌 조각은 화장대 위 영수증 보관함에 보관된다. 후배와의 이별 후 그녀는 마침내 인삼 껌을 입 안에 넣어 씹는다. 이때 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껌을 씹는다는 것은 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빨어내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삼키는 것은 동화·

체화되는 것이다. 다른 음식물과는 달리 껌은 삼킬 수 없는 물질이다. 삼킬 수 없다는 것, 스며들 수 없다는 것, 결국 뱉어야 한다는 것은 껌이 한 개인의 육체에 이질적인 물질로써 끝내 섞일 수 없는 타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껌과 같이 동화될 수 없는 개인적 관계라는 자각은 연대와 교감이 아니라 불안의 정서를 초래한다.

인삼껌은 살점처럼 피로하게 늘어져 있다. 그녀는 껌을 코에 갖다 대본다. 사라질 듯 말 듯한 향신료의 흔적이 한 자락 후각 세포 안에 걸려든다. ... “아직 달다”...입 안 가득 달콤 씹싸름한 인삼껌의 맛이 침과 함께 괴었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된다. 그녀는 웅크린 채 질경질경 껌을 씹으며, 단물이 빠질 때까지 드라마의 ‘전송 완료’를 기다린다. 어스름한 모니터 불빛 때문인지 씹싸래한 인삼 맛 때문인지 껌 씹는 그녀의 표정은 울상인 듯 그렇지 않은 듯 펍 기괴해 보인다. (80쪽)

그럼에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나머지 반쪽 껌을 씹는 행위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동질성과 아울러 공동체를<sup>21)</sup>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배는 떠났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이별이라서 후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울상처럼 기괴해 보인다. 후배가 떠난 후, 후배가 남긴 껌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껌을 기억하고 그것을 꺼내어 씹는다. 그녀의 껌을 씹는 행위는 현실이 아무리 누추하다고 하더라도 어긋난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남긴 껌을 입 안으로 가져와서 씹는 것은 너의 자리에 대신 서 본다는 것, 너의 신발을 신어본다

21) “사람들의 공동체란 인간에게만 특유한 어떤 집합체가 아니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한 종류라고. 그것은 그 자체로 생명체인 자율적 생명체의 연합이지만, 그 연합의 양상에 따라 다른 생명력을 갖는 새로운 수준의 생명체라고. 그것은 단지 사람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순환적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연합이며, 동질적인 요소들이 그저 모여 사는 ‘군집’(群集) 내지 ‘군생’(群生)의 형식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 제공하면서 순환적인 삶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생’의 한 형식이라고.” 이진경, 『미래의 맑스주의』, 그린비, 2006, 366~367쪽 참조.

는 것, 그리하여 너의 상처를 돌아본다는 것, 너는 나임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나오며

이상에서는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에서 드러난 서술어 ‘버려지다’의 층위와 그로 인한 주인공들의 신체·생리적 기제의 작동 방식을 고찰하였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땅의 도시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주인공들은 도시 생태 속에서 조화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잘 관계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의 토대를 바탕으로 백그라운드(배경)의 사회적 관계는 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포그라운드(전경)의 개인적 관계는 백그라운드의 영향 아래에서 ‘버림받음’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긴밀히 맞물리며 돌아가고 있는바, 자본의 극단적인 경쟁 체제는 여유와 관용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배려받지 못한 개인은 숨차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한 개인을 옥죄거나 억압하면 억압당한 개인은 또 다른 개인을 환대하지 못한다.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리되어야 마음이 편하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은 불안한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디고 있는 중이며, 그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생태이다.

주인공들은 도시 중심부와 학원으로부터의 배제와 도서관과 월세방으로부터의 분리를 드러낸다. 즉, 순차적으로 학원, 도서관, 월세방에서 주인공들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고립·소외되거나 외면·유기된다. 이는 신체적 증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육체적 피로가 겹치면서 연쇄적으로 몸의 이상 징후를 드러낸다. 예컨대 예정일이 아닌 데도 생리를 하거나 겨울이 아닌데도 여름 감기를 앓는 것이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도시 청년들의 심리적인 불안함은 동원

된 체육대회에서 삶의 패배감으로 연결된다. 그들은 도시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있지만 불평등에 저항하지는 못하는 청년들이다.

그러나 껌을 씹고 침이 고이는 육체적 작동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후배의 입장에서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때마다 침이 고이는 것처럼 이별의 아픔과 상처가 육체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그것이 육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상처가 아니라 또렷하고 생생한 상처의 회귀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후배는 상처 받은 타인과 껌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공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는 비록 후배가 떠나버렸을지라도 후배가 남긴 껌을 씹어보는 행위는 공유점을 찾아 공동체와 연대를 꿈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껌은 삼킬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타인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심층적으로 후배가 남긴 껌을 씹는 그녀의 행위는 다시 한번 후배의 자리에 서 봄으로써 후배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이며, 후배가 곧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이 고인다」는 자본주의의 도시 생태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비록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지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남긴 껌을 씹어보면서 상처의 자리에 똑같이 서 보려고 하는 그녀의 흉내 내는 행동,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아프면서도 타인을 다시 사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후배의 태도 등은 일면 인간 관계의 교감과 연대의 가능성으로 읽힌다.

## 참고문헌

- 김애란, 『달려라 아버지』, 창작과비평사, 2005.  
\_\_\_\_\_,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_\_\_\_\_,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 권성우, 「조속한 청춘의 문학-김애란론」,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8.  
김우창,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영사, 2014.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도서출판 아르케, 2006.  
이진경, 『미래의 맑스주의』, 그린비, 2006.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2023.  
머레이 북친,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서유석 옮김, 메이데이, 2012.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8.
- 김예림, 「두 도시 이야기: 김애란과 편혜영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제68호, 산지니, 2008, 28~41쪽.  
김재덕, 「김애란 초기 단편 소설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택중, 「디킨스 후기 소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현대영어영문학』 제54권 2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0, 43~59쪽.  
박주언·안현의·김원형, 「심리 외상 이후의 신체 증상」, 『정신신체의학』 24, 2016, 43~53쪽.  
송지연, 「차이들의 우주적 네트워크-2000년대 한국 소설의 패러다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19~448쪽.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5~78쪽.  
이광호, 「나만의 방, 그 우주 지리학」,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283~306쪽.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75~397쪽.  
임수진, 「치유적 관점으로 본 문학 교육의 효용성: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4.

정윤희, 「신빈곤에 관한 문학적 서사: 김애란 소설집 『침이 고인다』, 『세계문학 비교연구』, 2013, 5~31쪽.

한혜경, 「창백한 청춘들의 도도한 이야기-김애란의 소설들」, 『새국어생활』, 제19권 제3호, 국립국어원, 2009, 107~114쪽.

홍단비, 「김애란 단편소설 「침이 고인다」 연구」, 『어문연구』 42권 4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14, 349~377쪽.

## An Ecological Consideration of Urban Youth in Kim Ae-Ran's 『Mouthwatering』

Ma, Hee-Jeong

The protagonists of 『Mouthwatering』 reveal their exclusion from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e academy, and their separation from the library and the rented room. In other words, in the academy, the library, and the rented room, the protagonists are isolated, alienated, or abandoned as they live a passive life without agency. This is operationalized as a physical symptom, which reveals a chain of physical abnormalities as physical fatigue overlaps. In the case of ‘her’, the cause is helplessness and chronic stress brought about by the excessive capitalist competitive society, and in the case of ‘junior’,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trauma. Junior confides in her the secret story of being abandoned by her mother, but is eventually abandoned by ‘her’ as well. At this time, the deficiency and wounds do not heal, and every time she is separated from someone close to her, drool comes and disappears.

The protagonists, who represent the urban youth of this capitalist society, are unable to adapt harmoniously to the urban ecology, relate well,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foundation of capitalism, social relationships have the structure of exploitation, and personal relationships have an abandonment structure. When a capitalist competitive society oppresses one individual, the oppressed individual is unwilling to welcome another. Rather than hospitality, they feel more comfortable in separation. Despite the difficult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protagonist does not give up her uneasy life easily and continues to endure it, which is the ecology of young people living in capitalism.

First, junior is a drooling after each repeated meeting and parting, symbolizing that the pain and wounds of parting are deeply imprinted on

her body. However, the junior continues to attempt to share the relationship by sharing a piece of gum with the heartbroken other. Next, 'she' chews the gum left by the junior after she leaves, which symbolizes finding common ground and dreaming of community and solidarity. On the surface, the gum symbolizes a disparate other that cannot be swallowed and cannot be mixed, but on a deeper level, her act of chewing the gum left by the junior is a reflection on the junior's wounds by standing in the junior's shoes once again, and recognizing that the junior is herself.

Keywords : Exclusion, Separation, Physical symptoms, Capitalism, Psychological trauma,  
Urban ecology

투고일: 2023. 11. 25./ 심사일: 2023. 12. 10./ 심사완료일: 2023. 12. 13.